

아파트 불빛 타자 눈엔 ‘레이저’… “커브가 마구된다”

타이거즈 새구장 첫훈련 해보니

‘호랑이 군단’이 새 안방에 첫발을 내디뎠다. 스프링 캠프를 끝내고 돌아온 KIA 타이거즈가 6일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오기나와에서 귀국한 이후 처음 진행된 훈련 이자 새로운 안방에서의 첫 훈련이었다.

먼발치에서 새 구장을 지켜봤던 선수들에게는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한 시간이었다. 메이저리그 출신 외국인 선수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구장이지만 그라운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반응이었다.

새 리카풀에 팀은 품 선수들은 그라운드를 달리며 챔피언스필드와 첫 인사를 나눴다. 어느 구장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리카풀에 선수들은 싱글벙글이었다. 넓찍한 공간에 깊끔하게 꾸려진 리카풀과 편의 시설은 무등경기장에 비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화’다.

주장 이범호는 “그동안 외국인 선수들이 오면 한국 프로야구 선수로서 괜히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웃었다.

팬들을 위한 관중석과 대규모 경기장은 웅장함에 자제 느끼게 한다. 하지만 막상 그라운드에서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은 ‘관중에게만 친화형 아니냐’라는 농담을 했다. 선동열 감독도 근심 어린 표정으로 경기장을 둘러보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매끄럽지 못한 그라운드로 인한 선수 ‘부상’.

내·외야의 바다이 율통불통 고르



6일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올 시즌부터 안방으로 사용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첫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뚫린 외야 타자 시야 방해… 투구 궤적 놓칠라

울퉁불퉁 그라운드… 짧고 흰 불펜 ‘볼멘소리’

프로야구 개막 3주 앞… ‘보완 시급’

지 못한데다 내야에 깔린 흙 상태도 문제였다. 코치들이 직접 내야 고르기 작업에 나섰지만 잔들이 끗곳에 눈에 띄었다. 덕이웃 앞 펜스도 너무 낮게 설치돼 파울 플라이 수비 중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경기력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불펜이다. 마운드에 오르기 전 투수들이 몸을 푸는 불펜을 둘러본 선동열 감독은 “4~5m 정도 더 여유를 뛰어야 하는데 길이가 짧게 만들어졌다. 짧고 협소한 불펜과 외야존은 계속 언급됐던 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했던 지적도 나왔다.

것이다”고 말했다. 불펜은 단순히 몸을 푸는 공간이 아니라 바로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수 있도록 ‘감’을 잡는 공간인데 이 부분이 깔끔했다는 설명이다. 또 곡선 형태와 투수들의 대기 공간도 깔끔하지 않다. 선 감독은 그라운드에 불펜을 마련해주라는 입장이지만 그라운드가 짧게 설계되면서 이 역시 쉽지 않다.

지나치게 좁은 외야 파울존도 선수들의 허슬플레이를 막아 경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응이다.

불펜과 외야존은 계속 언급됐던 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했던 지적도 나왔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전광판 아래 공간이 트여있는데다 외야 일쪽에 위치한 아파트가 그대로 사이에 들어오면서 아파트 불빛 등에 타자의 시야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투수들이 볼을 놓는 지점을 놓치면서 특히 커브가 마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훌륭한 인프라와 함께 팬들이 원하는 최고의 팬서비스는 좋은 경기력이다. 광주시와 KIA가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챔피언스 필드 조성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